



환경부

제2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출범

학계,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188명

환경부는 지난 11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 단체, 학계, 관계 전문가, 공무원 등 200명으로 구성된 제2기 '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'의 발족을 겸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간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외부 전문가 18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환경정책 청사진을 담은 '국가환경종합계획'과 2006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에 대한 소개 및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등 향후 환경정책 방향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.

금번 제2기 위원은 제1기부터 활동하였던 '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' 김재옥 회장을 비롯한 102명의 연임 위원과 환경보건, 친환경상품, 자연경관심의 등 새로운 정책 분야 신규 위원 86명으로 구성되었다.

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위원의 36%(68명)를 여성위원으로 하였으며 지역

여론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인재를 육성·활용할 수 있도록 32%(60명)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위원으로 위촉하였다.

또한,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학계 56%, 연구기관 15%, 산업계 5%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추천위원 22%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였다.

제1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2003년 9월 총 197명의 위원으로 출범하여 3차례의 전체회의와 총 599차례의 분야별 회의에 참여하여 사전예방중심의 환경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,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업무 신설, 국가환경종합계획('06~'15)의 수립,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, 4대강 수질총량관리제 시행, 자원순환형 사회체계 구축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전개하였다. ◀